

# 동화구연 지도사 과정



## 목차

1. Chapter 1 동화구연의 개념 및 교육적 가치 .....	3
2. Chapter 2 동화구연의 역사 .....	6
3. Chapter 3 아동문학 .....	8
4. Chapter 4 유아 발달과 문학 .....	11
5. Chapter 5 구연의 기법 .....	15
6. Chapter 6 대화체의 중요성과 표현법 .....	22
7. Chapter 7 동화의 선택과 개작 .....	26
8. Chapter 8. 동화 구연의 준비 .....	31
9. 동화구연의 실제 .....	36
10. 등장인물의 구연방법 .....	37
11. 동화구연 원고 .....	39
12. 음성표현을 위한 손유희 .....	51

## 1. 동화구연의 정의

동화구연(童話口演)은 동화나 이야기 등을 여러 사람 앞에서 말로써 재미있고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동화를 글로써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의사를 연출하듯이 표현하는 활동(석용원, 1993)을 의미한다. 문자언어로 쓰여 있는 이야기를 음성언어로 들려주는 것으로 구연자의 목소리와 몸짓, 표정 등을 통해 동화를 재미있고 생동감 있는 언어로 만들어 주는 활동이다. 유아들은 동화를 들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의미를 이해하며, 동화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동화와 연관된 활동을 통해 언어의 수용능력(듣기, 읽기)과 표현능력(말하기, 쓰기)을 자연스럽게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

동화구연(narration of the fairy tale)과 구연동화(orally narrated children's story)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화구연’은 동화를 목소리 연기로 그 내용을 충분히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말하며 ‘구연동화’는 동화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구연의 방법으로 제시된 동화라 할 수 있다.

동화구연에서 구연자의 감정은 매우 중요하며, 구연자가 능동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면 듣는 어린이도 그 이야기를 생생하고 풍요롭게 경험하게 된다(Bettelheim, 1998).뿐만 아니라 유아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언어를 확장시켜 주며 이야기의 의미를 내면화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김현희, 박상희, 2016). 구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감을 갖게 해준다.

## 2. 동화구연의 요소

동화구연의 요소는 구연자, 듣는 사람, 구연할 내용이다. 구연활동을 할 때 이 세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구연자와 듣는 사람 모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1) 구연자(화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구연자가 될 수 있다. 구연자의 기본 요건은 무엇보다 청자(아동)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등 누구나 구연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연자는 동화를 들을 아동에게 애정을 갖고 아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아동의 수준에 맞는 동화를 선택하고 선택한 동화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2) 듣는 사람(청자)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동이나 성인을 포함한 누구나 청자가 될 수 있다. 좋은 청자는 구연자와 함께 동화의 내용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고, 바르게 듣는 태도를 익혀야 한다(이은경, 2008)

## 3) 구연할 내용

동화와 동시를 포함하는 아동문학의 모든 장르가 구연을 위한 내용이 될 수 있다. 구연자가 적절한 내용이라고 선택한 동화라면 청자의 수준에 맞도록 다듬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개작(동화 다듬기)이라 하는데, 개작을 하기 위해 구연자는 동화의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고, 어떤 부분을 보존하고 삭제할 것인지, 첨가할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청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자의 수준에 맞고 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3. 동화구연의 교육적 가치

동화는 아동들이 만나는 최초의 문학이다. 아동들은 동화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생각하고, 기쁨을 느끼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는 오래전부터 '아동을 위한 교재'로 이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아동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교육적인 문학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많은 교사나 어머니들이 동화구연을 배우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아동들에게 더욱 재미있게 동화를 들려주어 아동들에게 동화의 교육적 가치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동화구연은 영유아들에게 동화를 듣는 즐거움을 줌으로써 동화 속의 정서에 공감하게 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뿐 아니라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또한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정서적 공감대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영유아들의 사회적 능력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 1) 예술적 공감의 측면

동화구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술적 공감이다. 예술적 공감은 동화를 듣고 “아, 그렇구나”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동을 통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경이로움을 인식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동화는 상상의 세계에서 자연스러운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이성적 공감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는 예술적 공감을 추구한다. 동화를 듣는 즐거움의 경험은 문학에 대한 예술적 공감을 주어 평생 예술적인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는 심미감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적 공감능력은 영유아의 정서발달에 많은 도움이 되며 감성지능 발달에 도움을 준다.

## 2) 간접경험의 측면

아동들은 동화를 들으면서 이야기 속의 인물에 동화되어 그 이야기 속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경험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과정의 하나이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동화는 아동들에게 시적 정의감을 통해 생활 속에서의 가치관이나 습관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사랑과 정의의 행위라고 한다면, 아동들에게 바른 행동과 바른 언어, 바른 생활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는 동화야말로 아동들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도덕교육적 측면

아동들은 동화를 들으면서 주인공을 자신과 동화시켜 주인공의 성패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한다. 동화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동정과 감동의 느낌은 참으로 훌륭한 도덕교육이 될 수 있다. 동화의 도덕적 가치는 동화 전체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이는 성인이 주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동이 찾으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음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다. 직접적인 교훈이나 지도보다 인성적 가치를 담고 있는 동화를 들려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유아의 마음에 녹아드는 인성교육이 가능하다.

## 4) 창의적 사고력 측면

동화구연을 들을 때 영유아들은 동화 속 장면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동화 내용에 집중하게 되고 이를 통해 무한한 상상력으로 그들만의 꿈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이러한 상상력은 현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 동화구연은 영유아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사고력을 넓고 깊게 발달시킬 수 있다. 성인이 들려주는 동화를 들음으로써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상상력의 활성화를 통해 사고의 발달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 5) 언어교육적 측면

아동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이 바로 언어다. 아동기는 언어의 형성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동들은 성인이 들려주는 동화를 주의 깊게 듣고 그에 알맞은 반응을 하게 된다. 동화구연은 읽기뿐 아니라 쓰기, 말하기, 듣기와 같은 언어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동화를 많이 듣는 것은 다양한 어휘와 문장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 언어적 표현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발음과 표준어 사용을 통해 바른 언어 습득에도 도움을 준다.

## Chapter 2 동화구연의 역사

### 1. 노변 동화(fire side story)

'노변 동화'란 화롯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누이고 들려주던 동화를 말하며, 이 시기를 동화구연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동화구연의 화술적 측면은 노변 동화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가정에서 계속 전해져 온 노변 동화의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2. 주일학교 동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 제일 먼저 아동을 위한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은 1890년경이었다. 당시의 주일학교 교육 내용을 보면 동화와 노래를 중요시했고, 일 년에 한두 번씩 동화구연대회를 열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한국기독교교육협회, 1974). 1934년에 발간된 <신선동화법(탐손박사 강술, 강병주 목사 필기)>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화구연 이론서로 주일학교 교사양성 과정을 위한 교재로 사용되었다.

### 3. 유치원 동화

1897년 3월 '부산유치원'을 시작으로 '인천유치원(1900)' 등이 세워졌지만 이는 모두 일본인이 세운 일본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이었다. 한국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으로는 백인기가 세운 '경성유치원(1913)', 미국인 선교사 Brownlee가 세운 '이화유치원(1914)' 중앙교회에서 설립한 '중앙유치원(1918)'등이 있었다. 당시 유치원 교과과정은 은물, 수공, 도화, 동화, 조선어, 숫자, 창가, 유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에 동화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동화를 통한 유아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중앙보육과(1922), 숭의보육과(1924)등이 설립되었는데, 교육과정에 동화법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치원 교사가 될 학생들이 동화구연을 배웠음을 알 수 있다.

### 4. 소파 방정환(1889~1931)의 동화구연

방정환은 일찍이 동화의 본질과 중요성을 알고 동화의 시각적인 전달보다 청각적인 전달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그는 세계명작동화 10편을 번안하여 <사랑의 선물(개벽사, 1922)>을 펴냈고, 1923년에 색동회를 창립하였으며, 아동교육용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였다.

또 동화회를 열어 직접 동화구연을 하고, 동화구연대회를 열기도 하는 등 어린이 운동에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선천적인 재능과 정열적인 화술로 방정환의 구연은 매우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1922년 첫 일요일에 동화회를 연 이래 동화구연의 역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겼다.

소파는 직접 동화를 창작하기도 했는데, '참된 동정'이나 '만년 셔츠'같은 작품은 지나친 영웅주의와 눈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느티나무 신세 이야기' 같은 작품은 구수한 입맛을 살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이재복, 1995).

방정환은 아동 중심의 새로운 관점으로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고, 우리나라 아동교육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자신이 쓴 책의 동화를 듣고 전국을 돌며 동화를 들려준 그의 열정은 동화구연을 연구하는 많은 이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 5. 라디오 방송 동화

1927년 경성방송국의 출범으로 어린이 시간이 편성되었고, 이를 통해 라디오 방송 동화가 생겨 동요와 동화의 보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방송 동화는 몸짓을 볼 수 없는 목소리만의 동화이기 때문에 음성의 고저나 강약만으로 동화의 분위기와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때의 구연가로는 방정환을 비롯하여 윤석중·정홍교·진장섭·김복진 등이 있었다.

## 6. 텔레비전 방송 동화

텔레비전의 보급으로 동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구연자의 표정이나 제스처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다. 또 동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완구나 소품 등 매체를 활용한 동화구연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극화 활동이나 인형극 분야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 7. 현재 동화구연 분야의 흐름

성인이 들려주는 구연에만 의존했던 동화가 오늘날에는 그림책을 비롯하여 TV, 라디오, CD, 컴퓨터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아동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동화구연 분야의 발전은 전문적으로 동화를 구연하고 연구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었다. 1972년 기독교방송국과 색동회가 주체한 '제1회 어린이 동화구연대회'를 시작으로 1976년에는 '제1회 전국 어머니 동화구연대회'가 열려 동화구연가를 배출하는 관문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문학교육에서 동화구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교사나 부모들의 동화구연에 대한 인식 및 교육과정과의 연계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제 동화구연은 단순한 언어교육이나 도덕교육의 차원을 넘어 통합적 교육매체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과정에서 신체발달,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Chapter 3 아동문학

### 1. 아동문학의 정의

아동문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학으로 아동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문학이며, 아동의 심리적·인격적 계도에 영향을 주는 문학이다(임원재, 2002). 아동문학은 주로 인간 최초의 성장기를 위하여 창작된 문학으로 다양한 교육성을 내포하며,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어린이의 감정, 생활, 그리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정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형식면에서도 언어와 문장의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표현한 것으로서 작가가 아동에게 읽힐 것을 목적으로 창작한 동요, 동시, 동화, 아동소설, 아동극을 총칭한 것이다(이재철, 1994). 아동문학은 아동을 위해 창작된 것으로, 아동들이 읽고 즐길 수 있는 동시에 고도의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Arbuthnot & Sutherland, 1991).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하면, 아동문학은 아동뿐 아니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어른을 위하여 쓴 특수문학으로서 형식면에서는 문학적이고 예술적 기준에 맞아야 하며, 내용면에서는 아동의 성장에 유익한 것으로서 아동들이 즐겨 읽을 수 있는 문학이어야 한다. 대체적으로 아동문학의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즉 0~12세로 보고 있다.

### 2. 아동문학의 특성

아동문학의 특성은 예술성, 흥미성, 교육성, 단계성, 단순명쾌성, 생활성, 문학성 등을 들 수 있다(채종옥·이경화·김소양, 2006).

**예술성:** 문학이 주는 감동은 잘 짜인 구성에 의하여 아름답게 승화된 예술성으로 표현된다. 아동문학도 독자인 아동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성을 지녀야 한다.

**흥미성:** 아동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내용을 좋아한다. 따라서 아동문학은 아동들이 흥미를 보일 수 있는 내용과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성:** 아동문학은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과 도덕성 발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단계성:** 아동문학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적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을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명쾌성:** 아동문학의 문학적 요소들, 즉 주제나 등장인물, 배경, 구성 등이 단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문학에서처럼 복합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동들은 문학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생활성:** 아동들은 직접 경험했거나 실제 자신들의 생활과 연관성 있는 이야기에 흥미를 보인다. 아동문학은 아동들이 경험하거나 아동들의 생활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문학성:** 문학작품에는 등장인물과 내용 및 독자를 산출하는 언술성, 사실과 환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허구성, 작가의 상상에 의한 창조성, 일정한 형식성, 함축성, 표현성, 정서성을 지녀야 한다.



### 3. 아동문학의 가치

아동문학은 교육적 측면에서 정서적 가치를 지닌다. 아동문학작품 속의 희, 노, 애, 략의 감정들은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정서와 풍부한 상상력을 길러준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안정된 정서를 발달시키게 되는데, 긍정적이고 안정된 정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과제에 대하여 도전적으로 임할 수 있는 내적동기를 형성하게 해준다.

또한 아동문학은 사회·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아동문학은 아동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들을 체험하고 나름대로 가치판단을 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해준다.

아동문학은 언어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아동문학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능력을 총체적이고 조화롭게 증진시키는 교육 자료이다(이성은, 2003). 아동문학작품을 읽고 작품의 내용에 대한 반응활동을 하는 것은 언어능력을 총체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아동문학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포함하는 인지적 가치를 지닌다. 상상력은 이성과 정서를 포함하는 정신능력으로 창의적 사고의 출발이 되기도 한다. 아동들은 많은 문학작품을 접함으로써 새로운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만들거나 꾸미는 창의적 문학활동의 동기를 가지게 한다.

### 4. 아동문학의 장르

아동문학의 장르는 그림책, 큰 책, 예측 가능한 책, 신화, 전설, 민담, 우화, 환상동화, 과학소설, 시, 현대 사실동화, 역사소설, 정보책, 전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류혜원, 2008).

#### 1) 그림책

그림책은 아동문학의 모든 장르를 초월하여 표현할 수 있는 장르로 이야기가 그림 위주로 되어 있어 읽기 쉽고, 글(text)과 그림(illustration)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상호의존적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며, 마주보는 두 페이지가 동시에 펼쳐짐으로써 극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장르이다. 그림책은 그림의 의미와 분위기로 이야기의 내용을 알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언어를 체득하게 해준다. 아동들은 그림책이라는 흥미로운 놀잇감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언어를 발달시키며, 세상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

#### (1) 그림책의 문학적 특징

##### ① 주제

그림책의 주제는 단순하면서도 보편타당한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하고,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며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동기는 신뢰감과 자율성을 키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랑과 자율성을 다루는 내용이나 가족과 일상적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 민속문화나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 유머가 있는 이야기 등이 적합하다.

## ②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

그림책의 등장인물은 아동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과 쉽게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래 동화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등장인물이 많고, 환상동화와 생활동화의 경우에는 개성이 강한 등장인물이 많이 나온다.

## ③ 구성(plot)

그림책의 구성에는 단선적 형식, 누적적 형식, 연쇄적 형식이 있다. 단선적 형식은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형식으로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이루어진다. 누적적 형식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의 반복과 첨가가 이루어지는 형식이다.

## ④ 문체 및 어휘 표현

그림책의 언어는 리듬감이 있고 반복이 많아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문체여야 한다. 그림책은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어휘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다소 어려운 어휘도 그림의 도움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경우에는 어휘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또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문형의 문장으로 표현된 것도 좋다.

## ⑤ 배경

배경에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다. 전래동화에서는 '옛날 어느 곳에~'처럼 배경이 단순한 경우가 많으나, 환상적 이야기나 사실적 이야기를 다룬 창작 그림책에서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 (2) 그림책의 미술적 특징

그림책의 그림은 이야기 내용을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의 형태는 분위기, 내용, 배경, 작가의 의도와 잘 맞아야 한다. 특히 지식 그림책의 그림은 아동의 이해 수준에 맞으면서도 과학적 현상이나 사물의 특징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한다.

## (3) 그림책의 평가기준

그림책을 고를 때는 그림책의 내용이 아동의 특성에 맞고 그림이 글과 조화롭게 완성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좋은 그림책의 조건은 창의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며 언어에 대한 흥미와 감동을 주는 아름다움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2) 전래문학(traditional literature)

전래문학은 전래동화 또는 옛날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글이 아닌 말로 전해져 내려온 문학으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보편적이며 구연하기 좋은 리듬감을 가진 언어로 표현된다. 전래문학은 아동의 상상력과 인간의 기본 욕구를 만족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민족 고유의 정서를 전해줄 수 있어 아동들에게 매우 적합한 장르이다. 전래문학의 종류는 민담, 우화, 신화, 전설, 전래동요 등을 들 수 있다.

### 3) 환상문학

환상문학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 또는 생물에 관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환상문학은 소재나 상징의 사용면에서 전래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전래문학보다 공간적·시간적 배경이 다양하고, 사건의 전개가 섬세하다. 또 내용을 구성하는 소재와 제재가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등장인물이 등장한다. 전래문학의 결말은 행복한 마무리가 많은데 비해, 환상문학의 마무리는 '열린 결말'인 경우가 많다.

### 4) 사실문학

사실문학은 작가에 의해 창작된 문학으로 생활동화, 전기, 지식정보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생활동화는 어린이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려서, 어린이들에게 진실을 알게 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다(이오덕, 1984). 있다.

전기는 과거 인물의 삶을 다룬 비허구적 장르이다. 전기가 사실에 근거한 순수한 내용이라면 지식정보책에 속하고, 재해석을 해서 창작적 요소가 가미된 것은 전기적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기는 신빙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고증을 거쳐야 한다.

## Chapter 4 유아 발달과 문학

유아기는 모든 면에서의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언어적 측면의 발달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다. 문학작품이 유아들의 발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발달 단계에 따라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유아의 기본 욕구

#### 1) 생리적 욕구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로서 인간의 선천적이고 본능적이며 생리적 현상들과 관련이 있다.

\*잠이 안 오니, 작은 곰아?(마친 워델)

\*목욕은 즐거워(교코 마스오카)

#### 2) 안전의 욕구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욕구로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이 욕구로 발전하게 된다. 물질적이고 경제적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되며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강력한 동기와 흥미를 유지하게 한다.

\*헨젤과 그레텔(그림 형제)

\*어둠을 무서워하는 꼬마 박쥐(G. 바게너)

### 3) 사랑과 소속의 욕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로서,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같은 것은 좌절이나 갈등, 위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인 강인함을 길러 주게 된다.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샘 맥브래트니)

\*무지개 물고기(마르크스 피스트)

### 4) 자아 존중과 성취의 욕구

자아 존중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좌절감, 열등감, 자기 비하를 초래한다.

성취의 욕구는 환경과 서로 상호 작용하여 보다 나은 단계로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으로 무언가가 되고자 노력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헬렌 켈러(송재찬역)

\*혼자 먹을 수 있어요(다니엘 부르)

\*으뜸 해엄이(레오 리오니)

\*혼자서 집 보는 날(유혜광)

### 5) 변화의 욕구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나면, 재충전을 위한 휴식이나 놀이를 하고 싶어지는 것이 변화에 대한 욕구의 일부분이다. 유아들에게 지식 정보책을 들려준 후에는 환상적인 이야기나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가벼운 소재를 다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다.

\*아기 다람쥐의 눈물(가도노 에이코)

\*아기 원숭이의 성냥개비 손가락

### 6) 이해의 욕구

유아는 끊임없이 주변의 세계를 탐구하고 호기심을 가지며 질문을 한다. 알고 싶어하는 이해의 욕구가 생기는 것은 지능 발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책으로는 지식 정보책이 많은데, 딱딱한 내용으로 된 것보다는 좋은 그림과 함께 쓰여진 지식정보책을 고르는 것이 좋다.

### 7) 심미와 질서에 대한 욕구

인간에게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요즘에는 유아의 심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유아들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득 찬 책을 통해 미와 질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 눈 오는 날(에즈라 잭 키츠)

\* 백설공주(그림형제)

## 2. 유아 발달의 특성과 문학

유아의 발달은 연령과 영역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

Burke(1990)는 3세에서 8세까지의 유아의 일반적인 특징을 ①활동적이고 ②호기심이 많으며 ③ 탐색적이고 실험을 좋아하며 ④ 참을성이 없고 ⑤ 자기중심적이며 ⑥ 상상력이 풍부하며 ⑦ 열의가 있고 ⑧ 예측할 수 없으며 ⑨ 모방하기를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 1) 인지 발달과 동화

영아는 태어날 때부터 빨강, 초록, 흰색이 구별이 가능하며 2~3개월이 되면 사람의 얼굴을 가장 오래 바라보고 빨강, 흰색, 노랑의 순서로 바라본다(Dannemiller & Stephens, 1988). 12개월경부터 영아들은 일상생활이 담긴 친근한 내용의 사실적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며 단순한 줄거리를 좋아한다. .

3~4세에는 주로 내부적 요소를 탐색하고 4~5세가 되면 외부 윤곽에 대한 탐색을 하게 된다. 6~7세 경이 되면 내부 윤곽을 탐색하면서 체계적으로 외부 윤곽도 탐색하게 된다.

6~7, 8세 동안은 실제와 환상에 대해 더 많이 구별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며, 물화론적이고, 실제론적 사고를 한다. 따라서 전래 동화나 환상 그림책을 좋아한다.

#### 2) 사회, 정서 발달과 동화

영아기는 부모와의 접촉을 통해 기본적 신뢰를 형성해 가는 시기이며, 점차 사물과 자기 신체를 구별하는 신체적 자아를 알게 되고 15~24개월경에 자신의 이름을 통해 나, 내 것을 알기 시작한다. 3개월경에는 즐거움과 불쾌감을 느끼고 5~6개월에는 분노, 혐오 그리고 공포감을 느끼며, 12개월에서 3~5세 동안에는 성차에 대하여 알게 되고 자립심이 발달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3세경부터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므로 자립심을 다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다. 부모의 칭찬과 벌을 통해 도덕적 책임감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는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전래 동화가 유익하다. 또한 동생이 생기는 시기이므로 형제애를 느끼게 해 주는 내용의 이야기도 좋다.

#### 3) 신체 및 운동 기능 발달과 동화

4~6개월경부터 소리나는 그림책을 좋아한다.

9~12개월이 되면, 손의 기술이 발달하므로 두꺼운 종으로 된 책이 좋다.

2세경의 유아는 간단한 물체를 끼워 맞추고 3세경에는 눈과 손의 협응력이 늘어나 단추를 풀고 신발을 신을 수 있다.

4세경에는 혼자서 이를 닦고 손발을 씻을 수도 있고 6~8세 사이에는 운동 기술과 근육의 협응이 점차 정교화되고 이 운동 발달은 자아 개념과 자존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 4) 언어 발달과 동화

##### (1) 언어 발달의 단계별 특징

① 3개월경: 쿠잉

② 6개월(옹알이기): 2, 3개월경부터 시작된 쿠잉이 옹알이로 발전한다.

③ 10개월~1년(언어 이전기): 옹알이에서 한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시기로 생후 일년 반쯤까지 계속된다.

④ 18개월~2년(명명기): 두 단어로 된 문장 사용하며 사물의 이름을 말하고 성인이 사물의 이름을 말하면 그 사물을 지적할 수 있다. 의성어 흉내를 내고 운율이 있는 노래를 들려주면 따라하며 리듬감 있는 동화를 좋아한다.

⑤ 3~5세: 상징 기능 발달하면서 점차적으로 복잡한 문법과 어휘력이 급증하고, 3, 4세 동안에는 어휘가 약 2배 정도 증가한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그림책 속의 같은 글자를 찾아 내며 글을 읽고 싶어한다.

⑥ 6~8세: 독립적으로 읽으며 자신의 의사 표현을 글로 할 수 있다.

## (2) 언어 학습에 관한 이론

사회 학습 이론가들은 언어 발달을 모방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유아들이 성인의 언어를 관찰하고 그것을 모방함으로써 습득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유아들이 모방이나 생득적 능력 어느 한 가지에 의해서만 언어를 습득한다기보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아의 언어가 습득됨을 알 수 있다. 모방뿐만이 아니라 체계적인 문학 교육의 환경 내에서 언어 습득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고는 독립적으로 발달하나 생후 일년 경부터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물체의 이름을 배우는 것은 물체를 집단으로 묶을 수 있게 하고, 물체를 분류하는 경험은 그 사물들의 이름을 쉽게 배우게 도와준다.

## (4) 언어 발달과 성인의 역할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데 있어 성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언어 학습의 모델이 되고 성인은 아동의 언어 활동의 조직자 또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며 유아가 구사하는 문장을 정정하는 역할을 한다, 가령, "어 멍멍이다!"하고 유아가 말할 때 "그래, 멍멍이가 뛰어가는구나."하고 좀 더 폭넓은 문장을 제시하여 유아의 문장력을 확장시켜 주는 것이 정정자의 역할인 것이다.

## (5) 동화를 통한 언어 교육

동화를 통한 언어 교육은 강제적이 아니라 흥미 속에서 언어의 표현 방법을 알게 된다는 데, 그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은 유아들에게 주의력을 키워 주게 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표현력을 기르는 것으로는 동화가 가장 효과적이다. 말하기와 듣기는 아동극이나 글짓기의 기초가 되고 책을 읽을 때의 나쁜 어조나 사투리 억양같은 것은 유아기에 있어서 동화의 바른 활용으로 크게 바로 잡을 수 있다.

## Chapter 5 구연의 기법

### 1. 어휘 표현

#### 1) 쉬운 어휘

유아는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있다. 아무리 좋은 동화를 들려주어도 유아들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좋은 구연이라고 할 수 없다. 구연을 할 때는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구연 시에는 추상적인 말을 피하고 구체적인 말을 사용해야 된다. '귀를 의심했다'는 '이상했다'로, '맥이 탁 풀렸다' '풀이 죽었다'는 '안 되겠다', '겁났다'등으로 해야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아름다운 꿈나라로 달음질쳤다'라는 표현보다 '잠이 들었다', '쌔근쌔근 잠을 잤다'로 하는 것이 구체적인 표현이다. 또한 유아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전달이 어렵다. 가령 '두통이 났어요'는 '머리가 아팠어요'로 해야 쉽고 친절하다. 동화를 구연하는 사람은 아동을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2) 활동적인 어휘

유아기는 활동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동화 속의 언어도 발랄하고 활동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동사나 부사의 사용을 통해 유아는 사건의 변화를 그림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상상해 볼 수 있다.

#### 3) 고상한 어휘

동화의 교육적 역할 중 바른 언어 교육의 측면이 중요한 만큼 동화 속의 언어는 항상 교육적으로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유아 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언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고상한 느낌을 주는 말을 써야 한다. 유아들이 흔히 쓰거나 듣는 말이라고 해서 '새끼, 공갈, 짜식, 웃기네 어쭈, 에이 씨, 끝내 줘어.--"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대화에서도 이런 난폭한 말 대신 말의 강약과 제스처어로 충분히 강한 느낌을 줄 수 있다.

#### 4) 정확한 어휘

같은 표현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에 따라 다른 언어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방언 또는 사투리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 해도 가능하면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석용원, 1980), 들려줄 경우에는 바른 표준어로 고쳐서 들려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굳이 사투리를 쓰지 않고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내용의 분위기를 손상시킬 경우에는 사용을 한다.

## 2. 음성 표현

구연의 음성은 조용하고 다정하며 애정에 담긴 목소리여야 하며 구연자 자신도 자신의 목소리가 편안한 느낌을 주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1) 음성의 유의점

#### (1) 자연스러운 음성

자기가 가진 음성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큰 음성이나 기교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음성의 크기는 동화 구연을 하는 장소와 듣는 사람의 수에 비례한다. 그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성이면 된다.

#### (2) 정확한 음성

유아들은 동화를 들을 때 구연자의 입과 얼굴을 보기 때문에 구연자는 정확한 발음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① 발성에서 오는 부정확: 'ㄴ'와 'ㄹ'의 구별, 장단 발음, 단모음과 복모음
- ② 빠른 말에서 오는 부정확: 동화 구연 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은 말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 ③ 어미의 부정확: 어미까지 정확하게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어미를 특히 강한 어조로 해서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
- ④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 것: 아, 음, 저, 그래서, 그런데, 그랬더니, 같은 접속사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한다.

#### (3) 자연스러운 음성의 변화

단조로운 음성은 지루함을 느끼게 하므로 음성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

- ① 장단: 음의 길고 짧음에 의한 변화로, "영민아--"하고 길게 부르면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르는 느낌이 들고, "영민아"하고 짧게 부르면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든다.
- ② 고저: 음의 높고 낮음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여성의 소리는 주로 높고 남성의 소리는 낮다. 너무 높은 소리만으로 계속 구연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며 쉽게 피로감이 느껴진다.
- ③ 강약: 발음 기관의 진동에 따라 생기는 진폭으로 느껴지는 소리의 세고 여림의 변화이다. 같은 높이의 소리를 낼 때, 더 먼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가 강한 소리이다.
- ④ 완급: 이것은 음의 연속 상태에서의 변화인데, 길고 느리게 내는 소리와 빠르게 연속적으로 내는 소리가 있다. 감정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해야 한다.

#### (4) 액센트

액센트란 음의 강세, 음조, 길이, 등을 조절해서 높이거나 강하게 발음하는 것으로 소리의 상하에 의해 생기는 말의 변화를 말한다.



(5) 느낌말의 사용

유아의 감정이나 의지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느낌말을 사용해야 한다. 느낌말을 표현할 때 지나치게 높거나 강한 음성으로 표현하여 내용과 동떨어진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느낌말을 표현할 때는 그 느낌말 뒤에 연결되는 대화의 내용에 따라, 느낌말의 감정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하, (생글이 덕분에 좋은 걸 배웠구나)

하하, (정말 신나는걸)

하하, (이를 어찌지)

아이고, (내가 바보야 바보)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이고, (이 일을 어찌누)

아이고, (허리야)

아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 줘)

아이, (예빠라)

아이, (갑갑해)

어, (어디 숨었지?)

어, (내가 예쁜 여자로 변했네)

어, (잘 한다)

야 (시원한 샘물이다)

야, (넌 아직 어려서 안돼)

아, (깜짝이야)

아, (그래, 이제 생각나)

아, (엄마는 언제쯤 오실까)

아, (정말 따뜻하다)

아,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럼, (넌 아빠를 도울 수 있어)

그럼, (물론이지)

그럼, (네 말이 맞아)

와, (맛좋은 수박이다!)

으앗, (더러운 물이다.)

참, (내가 들어갈게)

흥, (싫어)

## 2) 발성법

구연자는 올바른 발성을 꾸준히 연습하여 소리를 고르고 편안하게 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음성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연습을 통해 소리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발성의 4단계

100의 음성 - 아주 높은 음성(최고음)	배고파!
75의 음성-높은 음성(고음)	엄마, 배고파요
50의 음성-보통 음성(동화나 연설의 기본음)	엄마, 배고파
25의 음성-낮은 음성(말할 때의 기본음)	아이, 배고파

### (2) 발성의 5단계

100의 음성 - 아! 바다에 뒤틀리는 파도의 몸짓
80의 음성 - 산에는 그대보다 쓸쓸한 나무
60의 음성 - 강에는 그대보다 서러운 물결
40의 음성 - 들에는 그대보다 외로운 들꽃
20의 음성 - 그대가 아무리 외롭다지만

### (3) 발성할 때의 주의점

- ① 목에다 힘을 주고 말하지 말 것
- ② 화난 소리로 말하지 말 것
- ③ 아우성치는 소리를 피할 것
- ④ 맵고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말 것
- ⑤ 껌을 너무 오래 씹지 말 것
- ⑥ 목을 많이 썼을 때는 꼭 쉬도록 할 것
- ⑦ 하루에 세 번 양치질을 할 것
- ⑧ 목이 피로할 때는 소금물로 양치질을 할 것

### (4) 좋은 발성법

- ① 입과 턱을 직각 정도로 되게 한 후에 소리를 낸다.
- ② 의자에 앉아 말을 할 때도 바른 자세로 한다.
- ③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를 낸다.
- ④ 아침에 일어나기 전과 잠자리에 누워서 '아-'하고 몇 번 소리내는 습관을 가지면 고르고 큰 소리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

### 3. 리듬 표현

#### 1) 리듬(rhythm)이란?

리듬을 운율이라고도 하는데 리듬은 시에서는 '율'이나 '운'으로 말하고 음악에서는 '박자'를 뜻하며 미학에서는 '조화'를 뜻한다. 선, 형, 음 등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리듬이라고 하는데, 시간적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물의 통일감이 곧 리듬이다.

#### 2) 유아의 리듬

유아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소리의 반응에 특별한 흥미를 나타내며 그것을 표현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나타낸다.

유아들은 자장가의 리듬과 이야기 속의 리듬을 들으며 잠이 드는데, 그것은 엄마의 이야기에는 '말'이 음악처럼 들리는 리듬과 강약이 있기 때문이다. 리듬에 민감한 유아기에 이러한 리듬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무의식중에 유아의 청각이 발달하고, 리듬 감각과 음악적 감각이 동시에 발달하게 된다.

#### 3) 동화 속의 리듬

동화의 리듬은 부분적 리듬 즉 화술에 리듬을 주어 지루함을 주지 않는 것이 있고 언어적 리듬으로 의성어, 의태어가 이에 속하고 현실감을 주면서 친밀감을 더해 준다. 그리고 이야기전체의 리듬은 한 동화 안에 같은 사건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어 지는 리듬이다.

그러나 리듬이 필요하다고 억지로 리듬을 붙인다면, 유아들이 리듬에만 치우쳐 이야기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동화구연의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흐름 속에 들어 있는 리듬이어야 한다.

#### 4) 의성어와 의태어

##### (1) 의성어

개굴개굴 귀뚫귀뚫 까르르까르르 까악까악 깔깔깔 깨갱깨갱  
꼬끼오꼬끼오 패액패액 피끌피끌 꿀꿀꿀 꿀걱꿀걱 끼룩끼룩

##### (2) 의태어

가물가물 갈팡질팡 강충강충 썩충썩충 꼬물꼬물 꼬불꼬불  
꾸벅꾸벅 꾸역꾸역 나폴나폴 너울너울 두리번두리번 바들바들

##### (3) 의성어와 의태어를 이용한 말놀이

참새는? 짹짹	나비는? 나폴나폴
아기는? 아장아장	토끼는? 썩충썩충
돼지는? 꿀꿀꿀	공은? 데굴데굴

#### 4. 동화 속의 느낌 파악

구연자는 동화 속의 느낌을 알아내고 이것을 자기화 해서 표현해야 동화를 듣는 유아들에게 이러한 느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동화 속의 느낌 파악을 위해서는 동화를 충분히 분석하고 인물들의 성격이나 감정 상태의 변화를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1) 감정표현 연습

###### \* 즐겁게

엄마 도깨비, 아기 도깨비 모두모두 신나게 춤을 추어요.  
랄라랄라 랄라랄라 랄라라  
온동네 도깨비 다 같이 춤을 추어요.  
랄라랄라 랄라랄라 랄라라

###### \*실망스럽게

똑똑똑, 개미야. 먹을 것 좀 줄래?  
배가 고파서 걸을 수도 없어.  
여름동안 내내 노래만 불렀더니 우리집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견뎌어.

###### \*화내며

뭐라구? 내가 지은 집이 날아갈 지도 모른다구?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너하고는 말도 하기 싫어!

###### \*슬프게

흑흑,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요. 어머니를 살려 주세요.  
어머니께서 돌아 가시면 전 어떡해요.

###### \*웃으면서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그만 웃겨 그만 그만 하래도, 아하하 넌 코메디언이야.  
아하하하하하

###### \*뽀로통해서

싫어, 말하기도 싫어!  
아무도 내 방에 들어오지 마.  
혼자 있을 거야. 들어오지 말라니까.

**\*의아해하며**

어? 꿈쩍도 안하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누가 안에서 문을 잠꿨나?

**\*놀라며**

아니, 무슨 일이니? 너희들 돼지네 집 아이들 아니니?  
아니, 할아버지 안경을 깨트렸구나.  
아이 깜짝이야.

**\*비웃으며**

치, 너나 실컷 퍼 줘라.  
그렇게 퍼주다간 금방 물이 다 말라 버릴걸.  
그땐 후회하지 마라, 쳇!

**\*다정하게**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있거라.  
넌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어서 이리 오렴. 엄마가 안아 줄게.

**\*씩씩하게**

준비 끝! 자 출발하자.  
난 꼭 해 내고 말 거야.  
힘껏 들어 올리는 거다, 영차!영차!

## Chapter 6 대화체의 중요성과 표현법

### 1. 대화체의 중요성

동화 속의 등장 인물들은 서로간에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상호작용에는 대화가 있기 마련이고 대화는 동화의 줄거리를 변화시키고 활동적으로 느끼게 한다. 대화가 있음으로 해서 동화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느껴지며 동화 속 인물끼리의 대화를 통해 그 인물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의 대화에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생각해 보자.

노랑나비와 흰나비는 장다리 꽃밭으로 놀러 갔어요.  
장다리 꽃밭에는 다른 나비들도 많았어요.  
"노랑나비, 흰나비야! 내 옷 어때? 꼭 여왕님 같지?"  
호랑나비의 자랑에 얼룩 나비도 거들었지요.  
"내 옷 좀 봐, 이 색동옷이 얼마나 멋지냐? 이 정도는 돼야지!"  
노랑나비와 흰나비는 입술을 삐죽였어요.  
"헛 이게 뭐야. 우리 엄마는 뭐 이런 옷을 만들어 줬지?"  
"그래 맞아, 나도 집에 가서 색동옷 해 달라고 조를 테야."  
노랑나비와 흰나비는 엄마가 정말 미웠어요.

이렇게 대화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밝게 나타내 주고,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까지 표현해 준다. 해설이 지루하게 계속되는 것보다 줄거리가 대화로 이어질 때 흥미를 느낄 수 있다.

### 2. 대화의 유의점

동화를 구연할 때 배경이 해설을 통해 설명된 후, 유아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왔을 때,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가끔 이야기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처음에 대화를 넣는 경우도 있다. 대화로 시작되는 동화의 경우에는 그 대화가 동화의 배경이나 전개될 내용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화체로 시작한 동화라도 계속적으로 여러 등장인물의 대화가 이어지면 동화를 듣는 유아들은 어리둥절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 대화체로 시작한 다음에는 해설로 설명을 한 후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좋다. 또한 같은 동화라도 대화를 앞으로 끌어내어 구연하면 주의 집중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과 왕비가 있었어요.  
"아아, 우리에게도 아기가 있었으면....."  
"아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임금님과 왕비는 아기가 없어 언제나 쓸쓸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유미는 할머니 집이 보이는 살구나무 아래서부터 할머니를 불렀어요.

"유미가 왔구나. 어디 한 번 안아 보자."

텃밭에서 일하시던 할머니가 유미를 안으려고 했어요.

또한, 동시에 네 사람 이상의 등장인물의 대화는 넣지 않는 것이 좋다. 구연자가 음성으로 아무리 인물의 개성을 표현한다 해도 어린이들은 각각의 등장인물을 혼동하여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자, 동물들은 서로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느라 시끄러웠지요.

"꼬꼬꼬, 내일도 내가 아저씨를 깨워 드려야지."

"후유, 오늘 밭 가느라고 참 힘들었다."

"나도 쥐들을 쫓느라고 무척 힘들었어."

"나도 열심히 집 지켰다."

"홍, 나라고 못 할까 봐? 나도 아저씨를 도울 수 있어."

돼지는 친구들의 자랑에 화가 났어요.

### 3. 대화의 표현

#### 1) 언어에 의한 표현

노인은 노인의 용어, 남자는 남자의 용어, 여자는 여자의 용어, 유아는 유아의 용어로 표현해야 한다.

"내가 시장에 좀 다녀올 테니 집을 잘 보라. 어험!"

"내가 시장에 좀 갔다 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야 한다, 알겠니?"

"나 시장에 갔다 올 거야, 멍멍아 집 잘 보고 있어, 응?"

#### 2) 음성에 의한 표현

어린이는 높고 명랑한 소리, 할아버지일 때는 굵고 느릿느릿한 소리, 할머니는 가늘고 느릿느릿한 소리, 엄마는 맑고 아름다운 소리, 아빠는 굵고 낮은 소리 등과 같이 음성의 고저, 장단, 완급, 강약을 가려서 표현해야 한다.

#### 3) 동작에 의한 표현

대화하는 두 사람의 인물이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 한 사람은 오른쪽, 다른 사람은 왼쪽으로 몸을 약간 돌리고 이야기한다. 이 때 지나치게 몸을 돌려서 어색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2. 동작언어의 개념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얼굴 표정을 포함해서 몸짓 또는 신체로 표현하는 모든 행동을 '동작언어'라 한다(구현정, 2002).

동작언어에는 얼굴 표정, 눈짓, 몸짓, 행동, 근접거리 등이 있다. 표정은 구연자의 감정 상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청자들에게 호의적 느낌과 편안한 느낌을 준다. 구연자는 동화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동화시켜 내용의 감정상태에 맞는 표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눈짓은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요소로, 상대방과 시선을 공유하는 것은 진정한 의사소통에 매우 중요하다. 구연 시 청자들과 눈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시선을 고르게 옮기고, 대화체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맞는 시선을 표현한다.

동작언어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정확해야 하며,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고 과장된 몸짓(over action)은 피한다. 동작은 배와 가슴 앞쪽의 범위 내에서 하고, 하체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손이 지시하는 동작의 경우, 눈의 시선은 항상 손끝을 따라가야 한다. 또 이야기의 내용과 동작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고, 해설체보다 대화체를 표현할 때 동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간혹 구연 시 지나치게 동작을 많이 해서 연극인지 무용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동작은 음악으로 말하면 반주이므로 음성이나 내용을 압도해서는 안 되며, 너무 강하게 표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동화구연의 기본자세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좁게 벌린 상태로 허리를 곧게 펴고 두 팔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양 옆으로 내리고 선다. 상체는 항상 아동들을 향하는 것이 좋은데, 대부분 아동은 구연자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선을 아동들과 맞춘다는 의미에서 상체가 아동들을 향하도록 약간 구부린 자세가 좋다.

## 4. 신체 부위에 따른 동작언어

### 1) 머리

- \* 정면을 볼 때: 결심, 강직, 용기, 분노
- \* 앞으로 숙일 때: 슬픔, 비굴함, 감사, 순종
- \* 뒤로 젖힐 때: 회상, 감상, 거부
- \* 좌우로 기울일 때: 약함, 초조, 주저, 생각, 의심
- \* 끄덕일 때: 긍정적 의미
- \* 뒤로 돌리거나 젖힐 때: 거부, 교만



## 2) 어깨

- \* 움츠릴 때: 추움, 무서움
- \* 으쓱일 때: 뽐냄
- \* 처질 때: 실망, 괴로움

## 3) 팔

- \* 팔을 들 때: 반가움, 인사
- \* 팔을 앞뒤로 흔들 때: 씩씩함, 행진
- \* 팔을 양 옆으로 벌려 흔들 때: 나는 모습
- \* 두 팔을 위로: 만세

## 4) 손과 손가락

- \* 주먹을 쥐 때: 결심, 분노, 자신감
- \* 손가락을 하나, 둘 꼽을 때: 수 세기
- \* 엄지손가락을 앞으로 내밀 때: 최고, 자신감
- \* 검지손가락 사용: 방향, 지시
- \* 새끼손가락 사용: 약속, 약함
- \* 두 손을 입에 댈 때: 큰소리, 속삭임
- \* 두 손을 귀에 댈 때: 들으려 할 때
- \* 두 손을 앞으로: 모양을 제시

## 5) 상체

- \* 굽힐 때: 노인, 인사, 용서, 부탁, 높은 사람 앞에 섰을 때, 물체를 밀 때
- \* 뒤로 젖힐 때: 자신감, 거만함, 물체를 당길 때

## 6) 얼굴 표정

- \* 화난 표정: 화냄
- \* 밝은 표정: 기쁨
- \* 우는 듯 찌푸린 표정: 슬픔
- \* 긴장된 표정: 놀람, 무서움
- \* 안타까운 표정: 기다림, 그리움

## 7) 눈

- \* 모양, 방향 등을 표현

## 8)입

- \*다물었을 때: 강함, 위엄, 진실
- \*아랫입술을 깨물 때: 분노, 결심
- \*반쯤 다물 때: 유순함, 실망, 기쁨
- \*벌릴 때: 놀라움, 아연함

## 5. 동작언어 실제

그래, 좋은 방법이 있어.  
넌 키가 작아서 자전거를 탈 수 없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애들아, 여기야. 어서 와.  
이야, 정말 높은데!  
난 왜 이렇게 밍게 생겼지, 잉잉.  
야옹, 축하해요. 이걸 아기에게 주세요.  
모두 고마워.  
자, 조금만 힘을 내.  
우리 반에선 내가 달리기 일등이야(가슴을 내밀며 자신 있다는 듯 강하고 힘차게).  
쿵, 아이쿠! 머리아.  
힘껏 들어 올리는 거다, 영차!영차!

## Chapter 7. 동화의 선택과 개작

### 1. 동화의 선택

여러 장르의 문학작품들 중에서 과연 어떤 작품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많은 부모들이나 교사들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조두영(1997)은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조건으로 재미있어야 하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며, 유아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명료하게 할 수 있고, 주인공의 역경을 통해 아동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암시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Paul Hazard(1999)는 좋은 책의 기준으로 예술의 본질에 충실하고, 어린이들이 즐겨 머리에 그리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인간다운 고귀한 감정을 어린이의 마음에 불어넣고 놀이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인간의 심성에 관한 지식을 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1) 내용면에서의 선택

. 구연을 위한 동화를 선택할 때는 예술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동화를 들을 아동의 연령과 계절, 장소, 환경, 시간, 요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다양한 목소리 표현을 할 수 있는 동화가 좋지만, 지나치게 등장인물이 많은 동화도 구연하기에 알맞지 않다.

동화는 아동의 다양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들려줄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대회를 위한 동화를 선택할 때는 먼저 대회를 주최하는 단체와 대회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동화를 선택하고, 구연시간이나 구연자의 능력, 구연스타일과 분위기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 2) 구성면에서의 선택

구연은 말로써 동화를 전달하고, 아동들은 청각에 의해서 동화의 내용을 파악하며 상상하고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연을 위한 동화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구성이 명확해서 아동이 이야기에 몰입하기 쉽고 들은 후에도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또한 단순구성이 아닌 복합구성으로 전개되는 내용은 어린 아동들에게 혼란을 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 2. 개작의 필요성

동화를 원래 작품 그대로 구연한다면, 시대에 맞지 않거나 아동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표현이나 이야기 전개방식이 구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대상을 고려하여 선택한 동화를 구연에 알맞게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과정을 개작 또는 동화 다듬기라고 한다.

## 3. 개작의 원리

개작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내용을 분석한 후 기, 승, 전, 결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서 보존할 부분과 삭제할 부분, 첨가할 부분을 구상한다. 복합구성이 아닌 단순구성으로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좋으며, 등장인물의 수는 3~5명 정도가 적절하다. 내용이 시대나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은 경우에는 배경 설정이나 등장인물의 설정 등 전체적인 개작이 필요하다. 외국 동화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정서와 생활에 맞도록 개작하고, 비교육적인 내용은 교육적인 내용으로 바꾸고, 부정적인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또 교훈을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피하고 동화 전체에 자연스럽게 교훈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좋다.

### 1) 내용면에서의 개작

#### (1) 보존

작가가 의도한 주제와 사건의 중심적인 흐름은 보존한다. 내용은 아동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2) 삭제

구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나 해설로만 계속되는 부분, 사건 전개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삭제할 수 있다. 등장인물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산만하게 느껴지므로 적당하게 줄이고, 공포감을 주거나 잔인한 내용, 특정 인물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내용(장애우, 새엄마, 형과 아우, 남녀, 인종 등)도 삭제한다.

또 시대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복잡한 것은 단순하게 바꾸고, 이야기를 들을 대상의 연령과

이야기 듣기 경험 등을 고려하여 동화의 길이를 조절한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원작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삭제할 수 있다.

### (3) 첨가

구연자의 의도와 능력에 맞게 한두 문장 첨가함으로써 극적인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첨가를 위해서는 과장법이나 반복법, 점층법 등의 수사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첨가 부분은 개작자의 문학적 창의성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구연의 효과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개작하는 것이 좋다.

## 2) 형식면에서의 개작

(1) 읽는 동화(문어체)를 듣는 동화, 말하는 동화(구어체)로 바꾸기 위해 어미처리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어미를 다양하게 하면 이야기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구어체의 느낌을 살릴 수 있다.

'~습니다, ~하였다'는 '~어요', '~지요', '~대요', '~지 뭐예요', '~답니다' 등의 어미로 바꾼다.

~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미

~지요: 결과적인 의미를 다소 내포하는 내용일 때

~대요: 결과를 단정 짓기보다는 아동들의 상상을 이끌어낼 때

~지 뭐예요: 놀라움을 나타내는 내용일 때

~답니다: 완료하는 의미의 마무리 부분을 나타낼 때

(2) 해설만 계속되는 부분은 대화체로 바꾼다. 해설이 많은 긴 동화는 대략 동화 내용의 3분의 2 정도를 대화체로 바꾸는 것이 좋다.

아기 햇살은 코스모스 씨앗을 꼬옥 안아주었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났지만 아기 햇살은 꼭 참았습니다.

아기 햇살은 코스모스 씨앗을 꼬옥 안았어요.

"냄새가 나도 꼭 참아야지. 그러면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3) 간접화법(~라고 말했어요)으로 표현된 부분은 직접화법(대화체)으로 바꾼다.

영수는 민희에게 아까 미안했다고 말했어요.

"민희야, 아까 미안했어."

훈이가 울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훈아, 걱정 마라, 해님이 알려주실 거야."

(4) 이중 구조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하고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5) 긴 문장은 짧고 리듬감 있는 문장으로 바꾼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구나."

"쓰레기 더미 위에서 저렇게 예쁜 꽃을 피웠구나."

(6) 평면적 언어를 입체적으로 활동적 언어로 바꾼다. 활동적인 동사나 부사, 형용사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절정을 살리기 위해 과장법, 점층법, 반복법 등 수사법을 적절히 활용한다.

(7) 표준말과 미감을 줄 수 있는 고상한 말을 사용하며 어려운 어휘는 쉬운 어휘로 바꾸고, 추상적으로 표현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바꾼다. 단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라든가 '전학온 친구' 등 등장인물을 사투리로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경우에는 등장인물 중 한 명 정도만 사투리로 말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8) 어휘나 사건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살리고, 불필요한 접속사의 사용은 가능한 줄인다. 특히 의성어와 의태어는 내용을 흥미롭게 하고 우리말의 리듬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하므로 잘 살려 쓴다.

(9) 어렵거나 긴 외국어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구연자가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려운 어휘는 발음하기 쉬운 다른 어휘로 바꾼다.

아기 병아리 꼬꼬와 차차는 꼬꾸똥 아저씨에게 갔어요.

아기 병아리 노랑이와 파랑이는 너구리 아저씨께 갔어요.

(10) 마지막 부분에 직접적인 교훈을 넣지 말아야 한다.

(11) 개작된 동화는 실제 구연하듯이 소리 내어 읽어보고 수정한다.

## 5. 개작의 실제

### <아기 햇살이 피운 코스모스(원작)>

하늘나라에는 많은 햇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님은 햇살들에게 지구로 가서 일을 하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햇살들은 지구를 향해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지구에 처음 가보는 아기 햇살도 끼어 있었습니다. 아기 햇살은 지구가 어떤 곳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아기 햇살아, 넌 무지개를 안 만들어 봤겠구나?"

"무지개?"

"그래, 하늘에다 우리가 꽃모양처럼 만드는 거야."

아기 햇살은 빨리 무지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햇살들이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자, 어둠을 걷어내고 지구를 깨우자!"

햇살들은 잠자고 있던 바다도 깨우고 산들도 깨웠습니다. 큰 도시의 어둠도 걷어냈습니다.

"부지런하고 착한 햇살들아, 수고했다. 자, 이제 각자 할 일을 찾도록 해라."

해님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며 말했습니다.

햇살들이 할 일은 참 많았습니다. 나무와 풀을 자라게 하고 예쁜 꽃도 피웁니다.

과일도 여물게 하고 온갖 아름다운 색깔도 만듭니다.

아기 햇살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곳도 있구나."

그렇지만 아기 햇살은 무엇을 할 지 몰랐습니다.

"해님! 저는 할 일이 없어요."

"네가 할 일은 스스로 찾아보렴."

해님은 웃으며 말해 주었습니다.

아기 햇살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쓰레기를 모아 두는 곳까지 왔습니다.

"어휴, 냄새야!"

아기 햇살은 얼굴을 찌푸리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주 작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 햇살아, 나를 좀 도와줘."

"응? 누구지?"

아기 햇살은 소리 나는 곳을 보았습니다.

"난 코스모스 씨앗이야. 네가 날 안아주면 나도 싹을 내고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아기 햇살은 코스모스 씨앗을 꼬옥 안아주었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났지만 아기 햇살은 꼭 참았습니다.

"고마워, 아기 햇살아."

코스모스 씨앗은 행복했습니다. 아기 햇살은 날마다 쓰레기더미 속에 있는 코스모스 씨앗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후, 코스모스 씨앗은 작고 귀여운 연둣빛 싹을 내밀었습니다.

"넌 매일 쓰레기더미에서 논다며?"

다른 햇살들이 아기 햇살을 놀렸습니다. 그러나 아기 햇살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스모스가 쓰레기더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기햇살은 더 따뜻하게 코스모스를 감싸주었습니다.

드디어 쓰레기더미 위에서 코스모스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다! 내가 피운 꽃이야!"

아기 햇살은 너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고마워, 아기 햇살아!"

보드랍고 예쁜 코스모스 꽃잎이 아기 햇살을 보고 방긋 웃어 주었습니다.

"장하다, 아기 햇살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쓰레기더미 위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구나."

해님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기 햇살은 코스모스 꽃 위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 <해롭이가 피운 코스모스(개작)>

아기 햇살 해롭이가 땅으로 내려 왔어요.

그때, 누군가가 해롭이를 불렀어요.

"아기 햇살아, 네가 날 안아주면, 나도 꽃을 피울 수 있어."

바로 쓰레기 속에 있는 코스모스 씨앗이었어요.

"뭐? 내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해롭이는 냄새를 꼭 참고 씨앗을 안아주었어요.

다른 햇살이 놀려댔어요.

"어휴 냄새, 너한테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

그러나 해롭이는 씨앗을 계속 안아주었어요.

며칠 후, 쓰레기 위에 예쁜 코스모스가 피어났어요.

"와! 꽃이다! 내가 피운 꽃이야."

해롭이는 코스모스 꽃잎 위에서 활짝 웃었어요.

## Chapter 8. 동화 구연의 준비

### 1. 구연하기 전의 준비

동화를 구연하는 사람은 이야기에 앞서 자신의 자세를 살펴보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 또한 듣는 대상에 알맞은 동화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장애가 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행동습관은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직인다거나 눈을 깜박이거나 시선을 산만하게 움직이거나 하는 것 등이다.

언어 습관은 '음-', '저-' 같은 필요 없는 말을 반복 하거나 소리의 강약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2)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 앞, 특히 많은 사람 앞에 서면 누구나 조금은 긴장하고 떨게 된다. 누구나 구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술적인 면에서의 능숙함에 있어서 차이는 다소 있지만, 많은 연습을 통해 그것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3) 안정감을 가져야 한다. 마음이 평온하여 평형을 느끼는 안정감을 가지면, 용기도 생기고 안정감이 없으면 용기도 없어진다.

4) 동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구연할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으면 자신감과 안정감도 자연스럽게 생긴다. ①작품을 충분히 읽고, ② 이야기의 구성을 분석하고, ③ 이야기의 문체와 표현을 익히며, ④ 이야기를 암기하는 것이 좋다.

5) 구연할 때와 장소를 생각하고 계절에 맞게, 듣는 유아의 수준에 맞게 동화를 준비해야 한다. 처음 동화를 들려줄 때는 짧고 내용이 단순한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정도를 높여 가는 것이 유아들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6) 응용물을 사용할 때는 미리 준비한다. 유아들은 동화를 들으면서 내용에 따라 머리 속에 그림을 그린다. 이것을 '청각 속의 시각'이라고 한다.

7) 구연자는 자신의 몸가짐에 신경을 써야 한다. 유아들의 감각은 예민하기 때문에 구연자의 옷차림과 머리, 손에까지 마음을 돌린다. 지나치게 요란한 옷이나 화장은 피하고 동화의 분위기에 맞는 자연스런 복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 2. 구연시의 주의점

### 1) 도입의 방법

구연시에는 도입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아동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 시작이 아주 중요하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기대감을 갖게 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면 유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유아교육 기관에서 매일 동화를 들려줄 경우에는 도입에 그다지 신경 쓸 필요 없이 매일 같은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들려주어 이야기를 듣는 시간임을 암시해도 좋다. 일반적인 수업의 교수법에서 말하는 도입이 동화 구연에도 필요한데, 주로 동화 내용과 관계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① 동화 주인공의 성격을 설명한다.
- ② 날씨와 관계된 동화의 경우에는 날씨 이야기를 한다.
- ③ 동화와 관계된 노래를 부른다.
- ④ 주인공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소개한다.
- ⑤ 그림책을 이용하는 경우 그림만 먼저 보여준다.
- ⑥ 동화와 관계있는 율동을 표현해 본다.
- ⑦ 동화에 등장하는 완구를 이용하여 소개한다.
- ⑧ 수수께끼를 활용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2)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말고 이야기의 내용에 자신을 동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3) 구연자는 유아들에게 시선을 골고루 주면서 자신의 이야기에 유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살펴야 한다. "

4) 제목을 소개한 후 약간 호흡을 정리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한다.

5) 아름다운 수식어가 필요 없다. 세밀한 수식에 치우쳐 시간을 끈다든지, 도중에 어물어물하고 있으면 유아들의 상상이 앞질러 버린다. 그러면 이야기가 클라이막스에 가도 별로 큰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



6) 호흡 조절을 위해서 끊어 읽기 표시를 하여 연습을 한다. 조금 쉬어야 될 부분과 많이 쉬어야 될 부분을 구별하여 연습한다.

7) 구연동화에서는 직접 화법을 많이 써야 한다.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보다는 등장인물의 목소리로 직접 표현하는 대화체를 많이 쓰는 것이 실감나기 때문이다. 유아는 호흡이 짧기 때문에 긴 문장은 싫어한다.

8) 자기 수정이나 주의 환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야기 도중에 "아, 다시 할게요."라든지, "한 가지 빠졌어요."하는 말은 이야기의 진행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된다. 잘못 말한 것이나 빼놓은 것이 그 이야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수정할 필요 없이 생략해도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쳐 나가면 된다.

9) 이야기를 다 들려준 후, 교훈적인 훈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곰돌이는 아주 착하지요? 네, 맞아요. 우리 별님반 친구들은..."같은 설교적인 끝맺음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 <어려운 발음연습>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어 보고, 점차 속도를 빠르게, 소리를 크게 하여 한 호흡으로 연결하여 읽는다.

은, 금, 올, 를, 늘, 림, 꿀, 흙  
음성, 극한, 스님, 여든, 아흔, 니온, 쓰레기, 슬기  
쓸개, 그들, 끓이다, 틀리다, 쓰이다, 느리다, 흐리다  
금은방, 서늘한, 받들다, 그득하다, 터득하다.

\*날콩 날팔 날달걀

\*기장 간장 공장 장남 장남수

\*저 빈 콩깍지는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신진 상송 가수의 신춘 상송쇼

\*이 분이 박법학 박사이시고 저 분은 방법학 박사입니다.

\*저 구름 그린 그림은 뭉게구름 그린 그림이냐? 새털구름 그린 그림이냐?

\*귀돌이네 담 밑에서 귀뚜라미가 귀똥똥똥 귀똥똥똥

똥똥이네 담 밑에서 귀뚜라미가 똥돌돌돌 똥돌돌돌

\*우리 집 옆에 간장공장이 있고 간장공장 옆에 된장공장이 있고 된장공장 옆에 고추장공장이 있고 간장공장, 된장공장, 고추장공장에는 공장장들이 있습니다.

### <발음의 실제>

\*나뭇가지 [ 나뭇까지 ] 와 꽃을 [ 꼬출 ] 꺾었어요.

\*안팎일을 [ 안팡니를 ] 참 잘하는구나.

\*자, 뭇뭇이 [ 뭇목씨 ] 나누자.

\*등을 굽지 [ 극찌 ] 마라.

\*저 맑디맑은 [ 막띠말근 ] 하늘 좀 봐.

\*산기슭에 [ 산끼슬게 ] 올라갔어요.

\*내 흙을 [ 흘글 ] 흠쳐간 게 너지?

\*흙이 [ 흘기 ] 싫담서

\*닭을 [ 달글 ] 산기슭으로 [ 산끼슬그로 ] 몰아라.

\*이제 쉼여덟이 [ 여덜비 ] 되었지요.

### <띄어 읽기>

동화구연에 있어 띄어 읽기는 호흡과 관계가 있으며, 띄어 읽기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제대로 띄어 읽기를 하는 것은 이야기의 흐름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 주어와 술어 사이는 띄어 읽는다.

곰과 호랑이는/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연못에 사는 엄마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요.(주어를 수식하는 말은 주어와 붙여 읽는다.)

무섭게 생긴 할머니가/ 멈춰 섰어요.

2) 부사 다음은 띄어 읽는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꼬리 긴 토끼가 강가로 놀러 나왔어요.

그러자/ 햇빛 줄기가 꽃씨들에게 쏟아졌어요.

제발/ 어머니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선물 준 걸 아무도/ 모르나 봐요.

글쎄/ 생각이 안 나는데.

3) 장소 뒤에서 띄어 읽는다.

꽃밭에/ 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골짜기에/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4) 문장부호가 있을 때 띄어 읽는다.

야!/ 잘됐다.

정말요?/ 와, 신난다.

이것 좀 봐. / 구멍이 뽕뽕 난 게 참 예쁘다.

5) 년, 월, 일, 시는 띄어 읽는다.

오늘은/ 2013년/ 10월/ 3일/ 목요일이에요.

그날이 바로/ 1950년/ 6월/ 25일이었어요.

6) 나열된 문장에서 띄어 읽기

가재는/ 눈을 빼앗길까 봐 살피다/ 눈이 툭 튀어 나왔고,/ 지렁이는/ 어리석은 자기 행동이 부끄러워/ 땅속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아빠는 회사에 가시고/ 엄마는 시장에/ 언니는 학교에 갔어요.

7) 띄어 읽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너구리는/ 사슴과 산돼지 아저씨에게 인사를 했어요.

너구리는 사슴과/ 산돼지 아저씨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빠/ 차가 도착했어요.

아빠 차가/ 도착했어요.

엄마 양말/ 신어요.

엄마 / 양말 신어요.

## <동화구연의 실제>



## 1. 등장인물의 구연방법

### 1) 사람인 경우 구연방법

등장인물	목소리 연출	모습
나쁜 왕비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배에 저장한 숨을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서 소리를 낸다. 이 때 입은 최대한 크게 벌리고 눈은 치켜뜨는 표정을 연출한다.	“아무리 봐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아....”
자상한 아빠	굵고 낮은 배에서 나는 소리로 웃는 얼굴표정을 연출한다.	“태수야! 아빠랑 함께 공원에 갈까?”
수다쟁이 아줌마	비음으로 입을 모아 빠른 속도로 발성을 하되 간사스러운 표정을 연출한다.	“호...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화가 난 오빠	입을 내밀고 불통거리며 씹씹거리는 목소리로 콧구멍에 힘을 주며 발성한다.	“누구야, 누가 내 도시락을 몰래 먹은 거야? 나와, 나와 봐!”
상냥한 언니	입을 양쪽으로 살짝 벌려 입 끝을 올라가게 한 후 밝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웃음 짓는 표정을 연출한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기	입술과 혀에 힘을 주고 목을 조여 내는 소리로 부드럽고 귀여운 표정을 연출한다.	“엄마, 사탕 주세요.”

### 2) 동물인 경우 구연방법

등장인물	목소리 연출	모습
호랑이 아저씨	굵고 낮은 배에서 나는 소리로 턱을 목쪽으로 당겨 주면서 발성한다.	“어흥 딱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마 아주머니	배에서 소리가 나오면서 비음을 살려서 발성을 한다. 입 모양은 최대한 크게 벌려 준다.	“나는 목욕하는 게 제일 좋아”
코끼리 형	입을 내밀고 목에서부터 발성을 한다.	“애들아 미안해. 내 똥이야.”
생쥐 언니	입 모양은 크게 하되 옆으로 길게 만들어 발성을 한다.	“고양이님, 살려주세요.”
병아리 아기	입모양은 최대한 작게 만들어 주고 입안에 소리를 모았다가 발성을 한다.	“삐약삐약, 우리 엄마 보셨나요?”
토끼 언니	아기 소리에서 높고 가느다란 소리를 꺾직한 표정으로 연출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순이에요.”
원숭이 오빠	토끼와 같은 방법으로 발성하되 목을 조금 더 조여주는 느낌으로 발성한다.	“애들아,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오리 언니	아래턱을 많이 움직이면서 입술에 힘을 주어 굵은 목소리로 목을 조여 저음으로 발성한다.	“꽁꽁꽁, 모두들 소풍 준비는 잘하고 있죠?”

★ 예쁜 동시 ★

◆ 기린과 하마

문삼석

하마가 기린을 보고  
걱정을 했어요  
저렇게 키만 크다가  
하늘이 뚫리면 어떻게 하지?

기린도 하마를 보고  
걱정을 했어요  
저렇게 살만 찌다가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지?

◆ 콩. 너는 죽었다

김용택

콩타작을 하였다  
콩들이 마당으로 콩콩 뛰어나와  
또르르또르르 굴러간다  
콩 잡아라 콩 잡아라  
굴러가는 저 콩 잡아라  
콩 잡으러 가는데  
어,어, 저 콩 좀 봐라  
쥐구멍으로 쑥 들어가네

콩. 너는 죽었다

◆ 고쳐 말했더니

오은영

사다리가 전봇대를 보고 놀랐어요.  
“넌 다리가 하나밖에 없네.”  
전봇대도 사다리를 보고 놀랐어요.  
“넌 다리가 두 갠데도 혼자 못 서지?”

사다리가 말을 바꿨어요.  
“넌 대단해!  
다리가 하난데도 혼자 서잖아.”  
전봇대도 고쳐 말했어요.  
“네가 더 대단해!  
사람들을 높은 데로 이끌어 주잖아.”

## 2. 동화구연 원고

### ☺ 꼬리가 긴 토끼(융판동화)

어느 날, 꼬리 긴 토끼가 강가로 놀러 나왔어요.  
“저 강 건너에 홍당무 밭이 있네. 아유! 먹고 싶어라.”  
그때, 악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악어야, 넌 왜 혼자 노니? 친구가 없구나.”  
“아냐, 나 친구 있어.”  
“그럼 데리고 와 봐.”  
악어는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에게. 겨우 한 명? 넌 친구가 한 명밖에 없니?”  
“아냐, 많아!”  
악어는 친구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어머! 진짜구나. 한 줄로 서봐. 내가 세어 볼게.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악어 등에서 토끼가 말했어요.  
“헤헤, 악어야, 난 강을 건너려고 그랬어.”  
화가 난 악어는 토끼의 꼬리를 꼭 물었어요.  
“아야야야.”  
그때부터 토끼 꼬리가 짧아졌습니다.

### ☺ 강아지 똥(역할극)

꼬부랑꼬부랑 시골길에 강아지 똥이 있었어요.  
"아이 심심해.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  
그때,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안녕, 참새야. 나랑 놀자."  
"어휴 냄새, 넌 개똥이잖아. 더러워서 싫어."  
"뭐! 내가 더럽다고?"  
강아지 똥은 엉엉 울었어요.  
"울지 마. 넌 꽃을 피우는 거름이잖아."  
민들레가 달래주자 강아지 똥은 활짝 웃었대요.

### ☺ 아롱이는 어디 갔을까

"아롱아, 아롱아."  
엄마 멍멍이가 아롱이를 찾고 있어요.  
"곰 아저씨, 우리 아롱이 못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악어 할아버지, 우리 아롱이 못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이번엔 뱀돌이에게 물어 봤어요.  
"뱀돌아, 우리 아룡이 못 봤니?"  
"아니, 못 봤는데요."  
엄마 멍멍이는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구연 포인트: 대화체를 표현할 때 시선의 움직임을 생각하며 구연해 보세요.

### ☺ 아기 참새 짹짹이

아기 참새 짹짹이는 엄마에게 나는 법을 배웠어요.  
"짹짹아, 날개를 파닥이면서 살짝 날아보렴."  
"파닥파닥, 어? 나도 날 수 있네."  
한참을 날아가니까, 날개가 아팠어요.  
아기 참새는 까마귀를 만났지요.  
"둥지에서 좀 쉬어도 돼요?"  
"너, 까옥까옥 울 수 있니?"  
"아뇨, 난 짹짹 울어요."  
"그럼 안 돼지. 넌 친구가 아니니까."  
짹짹이는 너무 슬펐답니다.

### ☺ 쌍둥이 친구

"구만아, 우리소 송아지 낳았대이."  
"엄지야, 정말이까?"  
엄지가 뽀내자 구만이는 그만 시무룩해지고 말았어요.  
"니는 와 빨리 송아지 안 낳노? 친구들한테 우리 소가 더 빨리  
송아지 낳을끼라 자랑했는데....."  
"구만아, 우리송아지 젖 빠는 것 보라 정말 예쁘제."  
"뭐가 이쁘노. 하나도 안 이쁘다."  
마침내 구만이네 엄마소도 송아지를 낳았어요.  
"엄지야, 우리 송아지가 너거 송아지 보다 훨씬 더 크고 이쁘기라,"  
"치, 뭐가 이쁘노. 하나도 안 이쁘다."  
어느날 엄지네 송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구만아 우리 송아지 못봤나."  
"엄지야, 우리 집에 퍼떡 온나. 저거 함봐래이."  
두 마리의 송아지가 구만이네 엄마소의 젖을 쫓아먹고 있었어요.  
"엄지야, 둘이 꼭 쌍둥이 같제? 우리도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사이좋게 지내자."  
엄지와 구만이는 서로 쳐다보며 웃었어요.



### ☺ 수염 난 아기염소

염소네 가족이 이사를 왔대요.

아기염소는 신이 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염소씨, 안녕하세요?”

“돼지할아버지, 전 아기염소예요.”

아기염소는 고개를 갸웃뚱거렸어요.

그 때 토끼, 강아지, 생쥐가 달려왔어요.

“애들아, 안녕? 나랑 같이 놀자,”

“아 - 안녕하세요? 염소할아버지.”

“아냐, 아냐. 난 할아버지가 아니야.”

아기염소는 엉엉 울었어요.

“어! 이상하다. 수염이 있잖아요?”

“아 - 수염. 염소들은 모두 수염이 있단 말이야.”

“아하! 그렇구나.”

### ☺ 원숭아 놀자

“원숭아 놀자.”

“싫어, 너처럼 키작은 친구는 필요 없어.”

화가 난 토끼는 원숭이네 집 대문에다 이렇게 썼어요.

“뚱뚱하고 못 생긴 원숭이.”

“이게 뭐야! 이건 분명 토끼의 짓이야.”

“눈이 빨간 잠꾸러기 토끼.”

토끼는 원숭이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갈게.”

“어휴, 얄미운 토끼 녀석!”

토끼와 원숭이는 점점 심한 말을 하게 되었어요.

“난 원숭이와 사이좋게 놀고 싶었는데.....”

토끼는 원숭이네 집에 살짝 편지를 두고 왔어요.

“날씬하고 마음씨가 고운 원숭이에게.”

“똑똑하고 귀가 예쁜 토끼에게.”

그후 토끼와 원숭이는 다정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 ☺ 개구리가 됐어요.

연못에 사는 엄마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요.

알에서 올챙이 한 마리가 태어났죠.

"엄마, 난 왜 다리가 없어요?"

"아가야, 열심히 수영 연습을 하면 다리가 생긴단다."

"네, 엄마."

올챙이는 매일매일 수영 연습을 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뒷다리가 쑥~

앞다리도 쑥~

"엄마, 엄마, 나도 다리가 생겼어요."

아기 개구리는 신이 나서 팔딱팔딱 뛰었어요.

⇒  개롱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롱꼬롱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

### ☺ 철봉을 해요 (빨대를 활용한 동화)

철이는 아빠 엄마와 함께 놀이터에 갔어요.

쭈욱 쭈욱 미끄럼틀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소도 탔어요.

"음~ 이번엔 뭘 해볼까?"

신이 난 철이는 놀이터를 둘러보았어요.

"그래, 철봉을 해 봐야지."

"어? 우리 철이가 철봉도 할 수 있어?"

"그럼요. 잘 보세요."

"으-쌌! 으-쌌! 어휴, 힘들어."

"철아, 힘 내! 할 수 있어."

엄마가 응원해 주셨지요.

"네 엄마, 다시 해 볼게요."

"으-쌌! 으-쌌! 으-쌌! 으-쌌!"

"우와! 우리 철이 정말 대단하구나!"

아빠가 칭찬해 주셨어요.

### ☺ 목이 길어진 사자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아기 사자가 있었어요.

"나도 기린처럼 목이 길고 얼룩말처럼 다리가 길었으면 좋겠어."

아기 사자는 천사를 찾아갔어요.

"천사님, 기린의 목과 얼룩말의 다리를 갖고 싶어요."

"뽀로롱~뽀!"

그러자, 아기 사자의 모습이 변하지 뭐예요.

"어, 기린의 목, 얼룩말의 다리, 와 멋있다!"

아기 사자는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으악! 괴물이다!"

친구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지요.

"아니야, 난 아기 사자야!"

아기 사자는 엉엉 울었대요.

## ☺ 아기새

따뜻한 봄날, 민지는 땅을 파다가 무엇을 찾아냈어요.

민지는 그것을 손에 꼭 쥐고 달렸지요.

맨 처음 뒹뒹 오리를 만났어요.

"손에 있는 게 뭐니? 나 줄 옥수수니?"

"아냐!"

이번엔 강아지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민지야, 손에 있는 게 뼈다귀니?"

"아냐! 내 거야."

민지는 머리를 흔들며 달려갔죠.

달리던 민지가 마당 구석에 섰어요.

그 곳에는 아기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기새의 날개는 가엾게도 상처가 나 있었지요.

"자, 이거 먹어. 아기새야, 배고프지?"

민지 손에는 쌀알이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던 쌀알을 아기새에게 준 거예요.

⇒ “아니야” 부분의 감정에 맞게 동작을 표현해 보자. ‘쌀알’의 발음 주의하여 연습

## ☺ 비 오는 날

초롱이는 노란 우산을 샀어요.

그래서 비오는 날을 기다렸지요.

“와, 비가 온다.”

비가 오자 초롱이는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갔어요.

“해바라기야, 내가 우산을 씌워 줄까?”

“난 비 맞는 걸 좋아해.”

해바라기는 고개를 저었어요.

“개구리야, 내가 우산을 씌워 줄까?”

“난, 비 맞는 걸 무척 좋아해.”

개구리도 싫다고 했어요.

초롱이는 그만 슬퍼졌어요.

그때 나뭇잎 뒤에 숨어 있던 나비가 말했어요.

“초롱아, 난 우산을 쓰고 싶어.”

“나비구나. 알았어. 내가 씌워 줄게.”

“고마워.”

초롱이는 나비와 친구가 되어 기뻐합니다.

## ♣ 아나운서 원고 ♣

### ▶ 잠깐뉴스 ♣

잠깐 뉴스 시간입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준비 하세요.

우산을 펼 때는

옆 사람이 찢리지 않게 조심합니다.

갑자기 해가 떠도

우산 챙기기 잊지 마세요.

이상은 ( )아나운서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 피 많은 토끼

토끼가 길을 가다 호랑이를 만났어요.

"어흥, 잘 만났다. 마침 배고프던 참인데."

토끼는 얼른 피를 냈어요."아이, 호랑이 아저씨, 우선 떡을 드시는 게 어때요?"

"뭐, 떡이라고?"

토끼는 불을 피우고 돌 열한 개를 불 위에 얹었어요.

"이걸 간장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구요. 제가 간장을 구해 올게요. 떡이 열 개니까 먼저 잡수시면 안 돼요."

토끼가 가자, 호랑이는 떡을 세어 봤어요.

"흐흐, 고 녀석, 열한 개를 열 개라니? 한 개는 먼저 먹어야지."

호랑이는 제일 큰 걸 꿀꺽 삼켰어요.

"앗, 뜨거!"

호랑이는 펄떡펄떡 뛰었어요.

## ☺ 아기 호랑이 얼롱이

아기 호랑이 얼롱이가 태어났어요.

"얼롱아, 크게 소리내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어흥!"

"어응!"

"아니, 배에 힘을 주고 더 크게 해야지. 어흥!"

"어응!"

얼롱이는 아빠처럼 하려고 했지만 목이 무척 아팠어요.

"아빠, 목 아파서 못하겠어요. 내일 할래요."

그러나 얼롱이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연습을 안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아주 작은 소리로만 말했지요.

"애 얼롱아, 네 말은 하나도 안 들려."

"맞아, 얼롱이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

얼롱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집에 온 얼롱이는 거울을 보며 외쳤어요.

"음, 배에다 힘을 주고 입을 크게 하고, 어흥!어흥!어흥!"

얼롱이는 이제 씩씩한 호랑이가 될 수 있겠지요?

### ☺ 다섯손가락 (손가락 인형)

다섯 개의 손가락이 웅기종기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지손가락이 잘난 척을 했어요.  
“아빠 할 때도 나, 최고할 때도 나, 내가 최고야.”  
“무슨 소리? 빠방 할 때도 나, 저 비행기 할 때도 나, 검지가 최고야.”  
가운데 손가락도 가만있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크지? 바로 나, 씹씩한 나라구.”  
그러자 옆에 있던 넷째 손가락이 코웃음을 쳤어요.  
“흥, 모르는 말씀, 귀한 보석반지는 어느 손에 끼더라? 바로 나지.”  
새끼손가락도 가만있지 않았어요.  
“소중한 약속을 할 때도 나, 컷구멍을 후빌 때도 나지.”  
그때 손바닥이 점잖게 소리쳤어요.  
“모두들 잘난 척을 하는구나. 너희들 모두 나 없이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바닥의 말에 손가락들은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그때부터 손가락들 앞으로는 구부러지지만 뒤로는 구부러지지 않는답니다..

### ☺ 희망을 찾고 싶어

언제나 엄마 토끼는 아기 토끼에게 말했어요.  
"얘야, 언제나 희망을 가져야 된단다."  
"엄마, 희망이 뭐예요?"  
"음~ 희망은 네 가슴에 가지는 보물 같은 거야!"  
"희망은 어떤 걸까? 희망을 찾고 싶어."  
아기 토끼는 물고기에게 물어봤어요.  
"물고기야, 희망이 뭔지 아니?"  
"희망은 넓은 바다야. 넓은 바다로 가는 것이 내 희망이거든."  
"물고기의 희망은 바다구나."  
아기 토끼는 나무 할아버지에게도 물어봤어요.  
"나무 할아버지, 희망이 뭔지 아세요?"  
"희망은 하늘만큼 높이 자라는 게지. 하늘은 내 희망이거든."  
"나무의 희망은 하늘이구나. 그럼 내 희망은 뭘까?"  
아기 토끼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 ☺ 사자와 생쥐(양말 손인형)

사자가 쿵쿵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생쥐가 지나다 사자의 발을 '콧' 밟았어요.  
"이 녀석! 내 잠을 깨우다니! 한입에 삼켜버릴 테다."  
"살려주세요, 사자님. 그럼 꼭 은혜를 갚을게요."

"뭐? 너 같은 꼬마가 은혜를 갚겠다고?"  
 사자는 웃으며 생쥐를 놓아 주었어요.  
 며칠 후, 사자는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앗! 살려줘, 도와줘!"  
 생쥐가 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사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물을 끊어 드릴게요."  
 생쥐는 약속대로 사자를 구해 주었대요.

## ☺ 아기구름

아기구름이 여행을 하다가 시골 마을을 지날 때였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를 내려 주세요."  
 할머니가 간절히 빌고 있지 뭐예요.  
 "그래, 내가 할머니를 도와 드려야지."  
 아기구름은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우리 힘을 합쳐 할머니를 도와 드리자."  
 "그래, 그래."  
 친구들이 모이자, 구름은 아주 뚱뚱해졌어요.  
 '후두둑 싸아!'  
 구름은 물방울이 되어 땅으로 뛰어내렸어요.  
 "아이구! 비가 오는구나. 고맙기도 하지."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작고 작은 아기구름은 온 세상을 촉촉이 적셔 주었습니다.

## ☺ 뚱뚱보 호박(요구르트병 교구)

밭 한 가운데 뚱뚱보 호박이 있었어요.  
 “난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도 날씬해지고 싶어.”  
 호박은 오이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오이야, 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날씬하니?”  
 “그거야 간단해. 허리운동을 하는 거야. 빙글 빙글 빙그르르.”  
 “아이구, 난 도저히 안 되겠어.”  
 이번에는 수세미를 찾아갔어요.  
 “수세미야, 나도 너처럼 날씬해지고 싶어.”  
 “매일 줄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야. 폴짝 폴짝 포울짝.”  
 “아유, 무서워서 안 되겠어.”  
 숙이 상한 호박은 해바라기에게 물어 보기로 했어요.  
 “해바라기야, 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키가 크니?”  
 “가슴을 펴고 쭈욱 발돋움을 해봐 이렇게 말야. 쭈욱 쭈욱 쭈우욱.”  
 “아니, 내 몸으로 그건 도저히 안돼.”  
 그때, 농부 아저씨가 왔어요.  
 “아아, 호박이 그동안 많이 컸구나. 푸둥푸둥 귀엽기도 하지.”  
 “뭐, 나보고 귀엽다고? 와아 신나다!”

호박은 너무 너무 기빠서 병글 병글 버엉글 웃었습니다.

### ☺ 개구리는 개구리야

아기개구리는 자기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난 내가 개구리인 게 정말 좋아."

개구리는 오리에게 갔어요.

"오리야, 넌 뭘 잘하니?"

"난 하늘을 날 수 있어."

"와, 멋지다! 나도 날아 봐야지!"

개구리는 오리처럼 팔을 흔들었지만, 날 수가 없었지요.

"난 날지 못하는 개구리야."

이번엔 토끼에게 갔어요.

"토끼야, 책 좀 빌려 줄래?"

"너 글자 읽을 줄 아니?"

"아니, 하지만 배우면 되지."

개구리는 책을 빌려 왔지만,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지요.

"나는 책도 못 읽고, 날지도 못하는 못난 개구리야, 엉엉."

그러자 토끼가 개구리에게 말했어요.

"개구리야, 난 날지도 못하고, 너처럼 헤엄도 못 쳐. 왜냐하면 난 토끼니까. 그리고 넌 개구리야. 우리가 사랑하는 초록색 개구리."

그제야 개구리는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난 헤엄도 잘 치고 높이뛰기도 잘하는 초록색 개구리야."

개구리는 활짝 웃으며 폴짝폴짝 뛰어올랐어요.

### ☺ 내 꿀 돌려줘(손가락 인형)

들판에 노란 민들레가 피었어요.

꿀벌이 날아와 꿀을 짹 짹 빨아먹었어요.

"꿀벌아, 내 꿀 먹지 마! 저리 가!"

꿀벌은 썩 날아가 버렸어요.

화가 난 민들레는 꿀을 찾으러 갔어요.

민들레는 거미에게 물었어요.

"거미야, 꿀벌을 봤니?"

"봤지, 내가 조금 전에 잡아먹었지."

"내 꿀을 꿀벌이 먹고, 꿀벌을 네가 먹었어. 그러니까 내 꿀을 돌려줘."

그때 메추라기가 거미를 물고 날아갔어요.

민들레는 언덕에서 곰을 만났어요.

"곰아, 메추라기 못 봤니?"

"봤지. 내가 조금 전에 잡아먹었지."

"내 꿀을 꿀벌이 먹고, 꿀벌을 거미가 먹고, 거미를 메추라기가 먹고, 메추라기를 네가 먹었어. 그러니까 내 꿀을 돌려줘."

곰은 껄껄 웃더니 '꽁'하고 똥을 누었어요.  
 "아유, 냄새! 꿀을 달라니까 왜 똥을 누니?"  
 "이 똥 옆에 뿌리를 내려 봐. 꽃도 피고 꿀도 생길 거야."  
 민들레는 너무 지쳐서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다음해 봄이 되자, 민들레꽃이 다시 피어났어요.  
 꿀벌들도 다시 날아왔지요.  
 민들레는 아주아주 행복했답니다.

### ㊤ 홍당무를 주세요.(주걱동화)

아기 토끼 토순이는 언제나 반찬 투정을 했어요.  
 "엄마! 난 이제 홍당무 먹기 싫어요!"  
 "홍당무는 토끼에겐 제일 좋은 음식이란다. 토순아."  
 "하지만 싫어요! 멍멍이처럼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토순이는 멍멍이에게 갔어요.  
 "멍멍아, 나 너처럼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토순아, 너 배고픈 모양이구나. 이거 먹어."  
 멍멍이는 토순이에게 뼈다귀를 주었어요.  
 "어휴, 딱딱해. 멍멍아, 넌 어쩔 이렇게 딱딱한 걸 먹니?"  
 토순이는 고양이에게 갔어요.  
 "토순아, 너 배고픈 모양이구나. 이거 먹어, 맛있는 생선이야."  
 토순이는 생선을 먹으려다 깜짝 놀랐어요.  
 "어휴! 생선 냄새. 숨도 못 쉬겠어."  
 토순이는 꼬꼬닭에게 갔어요.  
 "토순아, 너 배고픈 모양이구나. 땅에 있는 쌀을 콕콕 쪼아 먹어 봐."  
 토순이가 쌀을 쪼아 먹으려는데, 코가 땅에 부딪쳤어요.  
 "아야, 코 아파. 아이 배고파. 집에 가서 홍당무를 먹어야지."  
 토순이는 집으로 달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홍당무 주세요."

### ㊤ 꼭! 한 번만

파란 하늘에 종달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야 신난다! 랄랄랄라라."  
 아래를 보니 늑대 아저씨가 상자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늑대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응, 맛있는 사탕 벌레란다."  
 "우와, 맛있겠다!"  
 "네 깃털 하나만 주면 사탕 벌레를 주지."  
 종달이는 얼른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저기 사탕 벌레 팔아요. 사먹어도 돼요?" "안돼."  
 하지만 종달이는 너무 먹고 싶었어요.



'정말 맛있게 생겼는데, 한 번만 사먹어 봐야지.'

종달이는 깃털을 하나 빼주고 사탕 벌레를 사먹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사탕 벌레를 사먹었어요.

매일매일 사먹다 보니 종달이의 깃털은 점점 없어졌지요.

"어휴, 힘들어. 숨이 차서 날 수도 없네! 하지만, 꼭! 한 번만 더 먹어야지."

그때 늑대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흐흐!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다고. 이젠 널 잡아먹어야겠다."

늑대가 종달이를 잡으려고 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깃털이 없어 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종달이 엄마가 날아와 늑대의 눈을 쏘아댔어요.

"옥~ 아이구, 눈이야!" 늑대는 두 눈을 감싸고 달아났지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는 종달이를 데리고 높은 나뭇가지 위로 날아갔답니다.

#### ☺ 풍풍이와 툄툄이(웅판동화)

숲 속에 풍풍이 웅달샘과 툄툄이 웅달샘이 있었어요.

비종종 비비종종, 종달새가 툄툄이에게 왔어요.

"아, 숨차, 툄툄아 물 좀 먹자."

"안돼, 내 가슴의 물을 쓰고 싶지 않아."

종달새는 풍풍이에게 갔어요.

"어서 와, 고운 노래를 들려줘서 고마워. 자, 마셔."

잠시 후, 사슴할머니가 왔어요.

"툄툄아, 물 좀 마셔도 되겠니?"

"안돼요, 내 가슴의 물을 쓰고 싶지 않아요."

사슴할머니도 풍풍이에게 갔어요.

"할머니, 목마르시죠? 어서 물드세요."

풍풍이는 숲 속 친구들에게 계속 물을 주었어요.

여러 날이 지나자, 툄툄이 웅달샘에서 썩은 냄새가 폴폴 풍겨나왔어요.

"어휴, 답답해. 종달아, 나뭇잎 치우고 내 물 좀 먹어줘."

"싫어, 썩은 물 먹으면 배탈 나."

"아이, 이럴 줄 알았으면 물을 나눠 줄 걸....."

툄툄이는 점점 시커멓게 되었고, 풍풍이는 언제나 맑은 물이 넘쳤대요.

#### ☺ 아기 개미와 꽃씨

오랜 시간 잠을 잔 아기개미는 무척 배가 고파서요.

아기개미는 수북이 쌓인 양식더미에서 조그만 낱알 한 개를 입에 물었지요.

"아앗, 어쩌면 그렇게 짹 무니?"

이렇게 말하는 건 바로 아기개미가 뱉은 조그만 낱알이었죠.

"넌 누구니?"

“난 꽃씨야.”

“꽃씨? 흥, 난 배가 고파서 널 먹어야겠어!”

아기개미는 뽀족하고 날카로운 턱을 내밀며 꽃씨에게 다가갔어요.

“오, 아기개미야, 네가 나를 삼키면 난 목숨을 잃는거야.”

꽃씨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아기개미는 코웃음을 쳤지요.

“흥, 이젠 거짓말까지 하는군! 한 군데서 꼼짝도 못하는 못난이가.....”

꽃씨는 두려움도 잊은 채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 난 이빨도 더듬이도 없어. 하지만 내 몸 속에는 씨눈이라는 게 들어있어.

머지않아 껍질을 가르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단다.“

“다리도 없는 네가 어떻게 바깥세상으로 나간단 말이니?”

궁금하다는 듯 아기개미가 물었죠.

“아기개미야, 넌 아직 세상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시인이 나와 같은 꽃씨를 두고 읊은 시가 있어. 잘 들어봐.”

“꽃씨 속에는 파아란 잎이 하늘거린다. 꽃씨 속에는 빠알간 꽃도 피어 있고,

꽃씨 속에는 노오란 나비 떼도 숨어 있다.“

꽃씨가 고운 목소리로 시를 읊자 아기개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꽃씨야, 그렇담 넌 요술쟁이구나.”

“그래, 난 요술쟁이야.”

꽃씨가 꿈을 꾸듯 중얼거렸어요.

그 때 꽃씨가 몸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 내 몸이 왜 이렇게 가렵지? 아기개미야, 나를 물기가 많은 곳으로 옮겨줘.”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꽃씨의 몸에서 하얀 싹이 돋아났어요.

어느 날 꽃씨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기개미야, 푸른 하늘과 햇볕 그리고 내 얼굴을 좀 봐.”

아기개미가 급히 밖으로 달려나갔죠.

“여기야, 여기!”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가 보니 거기엔 봉숭아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내 이름은 봉숭아야.”

“그 조그만 꽃씨가 이렇게 요술을 부리다니?”

개미는 깜짝 놀랐지요.

마침내 봉숭아의 씨주머니가 노랗게 익어 툭툭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 꽃씨는 그냥 씨앗이 아니라 요술구슬이야.....”

개미는 들뜬 목소리로 땅에 떨어진 씨앗들을 땅 속 곳간으로 가져갔지요.

씨앗들은 이제 개미의 겨울 양식이 아니라 새로 태어날 아기개미의 좋은 친구니까요

### 3. 음성표현을 위한 손유희

#### ♣ 땡땡박수 ♣

땡땡땡땡 짹땡 땡땡땡땡 짹땡 밖에 누가 오셨나봐요  
아빠가 나가봤어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짹땡 땡땡땡땡 짹땡 밖에 누가 오셨나봐요  
엄마가 나가봤어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짹땡 땡땡땡땡 짹땡 밖에 누가 오셨나봐요  
오빠가 나가봤어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짹땡 땡땡땡땡 짹땡 밖에 누가 오셨나봐요  
언니가 나가봤어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짹땡 땡땡땡땡 짹땡 밖에 누가 오셨나봐요  
아기가 나가봤어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짹땡 땡땡땡땡 짹땡 밖에 누가 오셨나봐요  
내가 나가봤어요 안녕하세요

#### ♣ 손으로 가리고 ♣

손으로 가리고 손으로 가리고 오른쪽으로 가니 아빠가 계세요.  
안녕하세요  
손으로 가리고 손으로 가리고 왼쪽으로 가니 엄마가 계세요.  
안녕하세요  
손으로 가리고 손으로 가리고 위로 가니 할아버지 계세요.  
안녕하세요  
손으로 가리고 손으로 가리고 아래로 가니 할머니 계세요.  
안녕하세요  
손으로 가리고 손으로 가리고 활짝 여니 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 ♣ 예쁜컵에 ♣

예쁜 컵에 우유를 쪼르르르 따라서  
꿀꺽꿀꺽 마셨더니 키가 자라요 쑹쑹 자라요  
미운 컵에 콜라를 쭈라라라 따라서  
벌컥벌컥 마셨더니 찌르자 찌르자 이가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를 몽땅 뽑아버렸어요.  
할머니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예쁜 컵에 주스를 쪼로로록 따라서 훌쩍훌쩍 마셨더니  
얼굴이 예뻐져요. 얼굴이 멋져져요.

♣ 아빠가 자동차를 타고 ♣

아빠가 자동차를 타고 푸우푸우  
엄마가 꼬불꼬불 라면을 호로록 호로록 (혹,,후룩, 호~~~룩)  
오빠가 운동을 으샤 으샤 으샤샤으샤  
언니가 노래를 물루랄라 오우오우오우리  
아기가 엄마 똥 쌌어요(졸려요, 배고파요)

♣ 눈과 코와 입과 귀 ♣

눈과 코와 입과 귀~  
눈과 코와 입과 귀  
눈과 코와 입과 귀  
랄라랄라 랄라라

♣ 나는 콩 ♣

나는 콩, 나는 콩  
동글동글 해서 떼구르르 굴러서  
프라이팬에 들어갔었지 아 들어갔었지  
그런데 웬일일까? 그런데 웬일일까?  
앗 뜨거!

나는 콩, 나는 콩  
동글동글 해서 떼구르르 굴러서  
냉장고 속에 들어갔었지 아 들어갔었지  
그런데 웬일일까? 그런데 웬일일까?  
앗 차가!  
{응용} 세탁기 속에 - 어지러워요 /화장실속에 - 오 냄새

♣ 꿀벌윙윙 날아와 ♣

꿀벌 윙윙 날아와 꿀벌 윙윙 날아와  
한 마리 콕! 아야~  
꿀벌 윙윙 날아와 꿀벌 윙윙 날아와  
두 마리 콕! 아야~  
꿀벌 윙윙 날아와 꿀벌 윙윙 날아와  
세 마리 콕! 아야~  
꿀벌 윙윙 날아와 꿀벌 윙윙 날아와  
네 마리 콕! 아야~  
꿀벌 윙윙 날아와 꿀벌 윙윙 날아와  
다섯 마리 콕! 꿀까닥~`

♣ 개구리가족 ♣

개구리 가족이 목욕탕에 갔어요.

아빠개구리 푸카푸카 푸카푸카

엄마개구리 쓱쓱 쓱쓱 쓱쓱 쓱쓱 찌찌도 쓱쓱 배꼽도 쓱쓱 엉덩이도 쓱쓱

오빠개구리 뽳뽳뽳뽳 뽳뽳뽳뽳

언니개구리 뽳샤 오~ 뽳샤 오~

아기개구리 물을 먹고 푸우~~

♣ 원숭이 가족 ♣

숲속에 원숭이 가족이 재미있게 살고있었어요.

아빠원숭이 날 따라 해봐요 아싸 아싸 아싸아싸아싸

엄마원숭이 날 따라 해봐요 아싸 아싸 아싸아싸아싸

할아버지원숭이 날 따라 해봐요 험~ 아싸 아싸

할머니원숭이 날 따라 해봐요 한손 허리 한손 지팡이 아싸 아싸

아기원숭이 날 따라 해봐요. 아싸 아싸 아싸 뽕뽕

♣ 오리 다섯 마리 ♣

커다란 연못에 오리 다섯 마리

둥둥한오리 날씬한오리 못생긴오리 예쁜오리 꿈지달린오리

둥둥한 오리는 꺽꺽꺽

날씬한 오리는 꺽애앳 꺽애앳

못생긴오리는 꺽앳꺽앳꺽앳

예쁜오리는 꺽애앳 꺽애앳

꿈지달린오리는 꺽꺽꺽꺽꺽꺽

♣ 주전자 ♣

나는 둥둥한 주전자예요.

뚜껑도 둥둥하고 주둥이도 둥둥하고 손잡이도 둥둥해요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따라주세요

나는 찌그러진 주전자예요

뚜껑도 찌그러지고 주둥이도 찌그러지고 손잡이도 찌그러졌어요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따라주세요

나는 반짝반짝 주전자예요

뚜껑도 반짝반짝 주둥이도 반짝반짝 손잡이도 반짝반짝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따라주세요

♣ 오리 가족 소풍 ♣

아빠 오리가 소풍을 가요. 짹 뒤뚱  
돌다리를 건너서 언덕을 넘으면 “어이, 시원하다.”  
시냇물이 흐르는 즐거운 오리 소풍. 짹 뒤뚱

엄마 오리가 소풍을 가요. 짹 뒤뚱 “아이, 더워!”

할아버지가 오리가 소풍을 가요. 짹 뒤뚱 “경치 한번 좋다!”

할머니 오리가 소풍을 가요. 짹 뒤뚱 “아이구, 허리야!”

아기 오리가 소풍을 가요. 짹 뒤뚱 “아이, 다리야.”

♣ 곰을 잡으로 갑시다 ♣

곰을 잡으러 갑시다 곰을 잡으러 갑시다  
수풀속을 헤치고 헤엄쳐서 갑시다  
나무위로 올라가 더 높이 올라가  
어디 있나 살피고 (찾았다)  
다시다시 내려와 성큼성큼 걸어서  
살금살금 기어가 하나 ~돌 ~셋 찾았다!

♣ 딸기 바나나 ♣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샀네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샀네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짹짹

연필을 사러 시장 갔더니 연필이 없어 지우개샀네  
연필을 사러 시장 갔더니 연필이 없어 지우개샀네  
연필 지우개 연필 지우개 연필 지우개 짹짹

수박을 사러 시장 갔더니 수박이 없어 호박을샀네  
수박을 사러 시장 갔더니 수박이 없어 호박을샀네  
수박 호박 수박 호박 수박 호박 짹짹

#### **참고문헌**

류혜원(2008), 동화구연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최태식, 인정이 외(2006), 아동을 위한 동화구연 이론과 실제, 양서원.